

업무능력 검증 등에서 파행... 도의회, 전개공 사장 청문 절차 중단

‘임명 강행’ VS ‘고발 검토’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가 '중단' 사태를 빚으며 도지사의 최종 결정만 남은 가운데 임명 강행시 도의회는 후속조치가 예상된다. 지난날 31일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은 비공개 예정인 '도덕성 검증'에 앞서 진행된 '업무능력 검증'에서 파행으로 끝났다.

성 검증 관련 추가자료 제출 거부한 것을 문제삼고 사실상 '부적격' 의 미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조류의 카드를 꺼냈다. 청문보고서가 전북도에 제출되지 않게 됨에 따라 임명에 대한 결정은 도지사의 몫으로 남게됐다. 도지사는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와의 청문 협약에 따라 2일까지 청문보고서가 분청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다



지난달 31일 열린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북도·도의회 협약 따라 오늘부터 임명 가능 임명 강행 분위기 속 도의회, 강경 대응 움직임

이병도 위원장은 12명의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1차 업무능력 검증 결과, 후보자가 개발공사 사업 등에 대한 숙지는 물론 관련 정부정책과 추진사업에도 답변하지 못하는 등 준비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개발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및 대안 역시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등 전체적으로 업무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위원회는 서 후보자가 도덕

음년부터 임명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 청문위원회의 경과보고서가 임명에 대한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도지사는 자율(?) 의사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다. 본청 내부에서는 임명 강행 움직임을 감지되고 있다. 서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자료 제출 거부 등 일부 매끄럽지 못한 과정을 보였지만 '능력' 부분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청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서 후보자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전북도를 위해 큰일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문을 주도한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임명 강행은 의회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문건위의 한 의원은 "지금까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해 볼 때 투기에

대한 정황이 보이는 만큼 만약 지사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을 검토할 수도 있다"며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고 초강경 의사를 밝혔다. 청문위원장이었던 이병도 문건위원장장은 "평소 김관영 지사께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신 것으로 안다. 의회가 이번엔 결정된 사항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

'K관광 경쟁력, 지역에'

문체부, 전주서 관광진흥계획 2차 초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가 '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은 2일 전주 한옥마을 승광재에서 관광정책 연속토론회를 갖고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관광매력 국가로 도약하는 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날 27일 첫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조용만 차관은 지역 관광거점도시 중 하나인 전주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이태원 참석에 대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후 토론회를 시작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 관광 흐름 변화와 대응 방향'에 대해,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지역 관광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청년 지역 창작자, 여행작가, 지역 관광업체, 여행사 관계자 등 전국 10여 명의 관광 전문가들도 지역 관광을 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관광 전문가들은 지역의 독특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객 유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체험형 관광, 위케이션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에 나섰다. /뉴스

청년이 바라보는 지역 치안문제 논의

전북 자치경찰위,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정책 경진대회

청년층이 바라보는 지역 내 치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정책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가 1일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메신저-폴 정책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층이 바라보는 지역 내 치안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층과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를 주제로 자치경찰 사무인 범죄예방·여성·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 교통안전 분야로 진행됐다. 이형규 위원장과 방춘원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20대가 많이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관리 방안과 여성 1인가구(원룸) 밀집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 등 도민안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경수 기자

메신저-폴 단원들은 안전한 우리동네를 만들기 위해 20대 청년들이 일상생활 중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느끼는 사항들에 대해 특별로 토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심귀갓길 개선,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안전한 관광지 만들기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중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최우수 제안으로는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교육방법인 '헬프피싱'과 사회적 약자보호 시책인 '세이프 스텝'가 선정되었으며,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제안은 실무부서와 정책결정을 통해 전북형 치안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회장은 "메신저-폴 단원들이 이번 행사에 제시해 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사회적약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에 김관영 도지사가 위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위촉된 명예 홍보대사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유튜브 영상 제작과 사진 촬영 등을 시작으로 이태미스터스 대회, 새만금 홍보 등 관련 행사에 전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사진 왼쪽부터 김관영 도지사, 가수 현숙, 배우 김수미, 가수 송대관, 배우 김성환,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도내 한방산업 활성화 제도적 근거 마련

전용태 도의원, '전북 한의약 육성 조례안' 발의

도내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오는 제396회 정례회에 맞춰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은 진안을 비롯한 동부산악권 지역 대부분이 약용식물 재배지로서 완벽한 조건이기에 전북의 약용식물에 대한 품질은 이미 유명하지만, 이를 활용한 한의약 연구·개발과 한방산업 추진에 대해서는 미비하거나 없는 상태"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용태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의 계획



수립의 협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한방산업 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한의약 산업이 특성화 및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어 도내 한의약 육성과 한방산업이 입지를 견고히 다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에 열리는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

OECD 농업장관회의 참석

국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장관회의에 3~4일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장관회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타결을 앞두고 농업정책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1992년에 처음 개최됐다. 통상 6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그간 국제 식량 위기 대응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등으로 논의의 폭을 넓혀왔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변화하는 환경 하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품시스템의 구축: 공동의 과제, 전환적 해결책'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 회원국과 유럽연합(EU), 초청국2), 주요 국제기구3)의 고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범수 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 △식량안보와 영양 강화 △농업인의 생계 개선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개 세부 의제와 관련해 한국의 주요 농업 방향과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도의회 행자위, 본예산 심사 대비 신규사업 보고회 개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일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신규사업 및 주요 예산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행정자치위원들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2023년 신규사업 및 주요 예산 편성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본예산안 심사는 12개 의회에서 첫 번째로 진행되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됐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 ·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보다 나은 농어촌

축! 전주매일 창간

농지연금

지가 있다면
금 바로 가입해야 할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재원사안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 (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개발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정 또는 영농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